

농촌진흥청, 사료피 현장실증지 찾아 생육 상황 점검

-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, 29일 경남 진주 사료피 재배 실증 농가 방문
 - 사료피 초기 생육 상태와 장마철 관리 상황 점검
 -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논 사료피 재배·활용 기술 현장실증 추진

※ 2026. 6. 29.(월), 경상남도 진주시 삼솔한우농장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6월 29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사료피 재배 실증농가를 방문해 재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증 추진 상황을 살폈다.

이날 조 원장은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추진 중인 사료피 현장실증 상황을 확인하고, 현장에서 활용하는 재배기술의 적용성을 점검했다.


국립축산과학원은 논 하계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사료피 재배와 저장·이용 기술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. 경상남도 진주시 사료피 실증지는 5헥타르 규모로 조성했으며,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품종 ‘만은’을 재배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있다.

조 원장은 사료피 초기 생육 상태와 재배지 관리 상황을 살핀 데 이어 재배 농가 관계자들을 만나 앞으로의 사료피 수확·저장 계획 등을 들었다. 이 자리에서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수렴하고, 장마철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삼솔한우농장 한기웅 대표는 “사료피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지원을 바란다.” 라고 말했다.

이에 조용민 원장은 "사료피는 논을 활용해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."라며 "현장 실증을 통해 재배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,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붙임. 경남 진주 논 사료피 안정 재배 현장 실증 추진 현황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1-580-6740)
		담당자	연구사	최보람 (041-580-6743)
				

□ 농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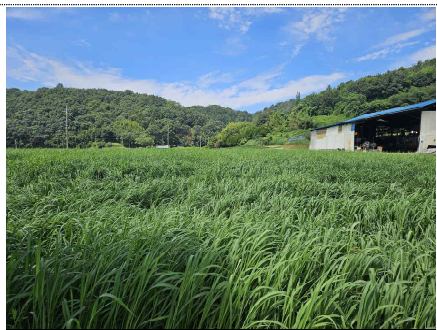
- 농장명: 삼솔한우농장(한기웅 대표) * '24년도 축산분야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
- 사육 두수: 한우 700두(자가 TMR 급여)
- 조사료 재배: 70ha(사료피10 , 이탈리아안 라이그라스 60)

□ 실증 개요

-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논 사료피 안정 재배 현장실증 추진('24~)
 - 재배 현황: (파종일) 6월 13일, (면적) 5ha * 이반성면 하곡리 181 등
 - 대상 품종: 축산원 개발 신품종 '만온'(만생종)
 - 파종 방법 및 파종량: 조파(줄파종), 20kg/ha * 휴폭(이랑거리): 30cm
 - 저장·이용: 헤일리지 또는 건초 제조



< 사료피 수확 연시회('24, 진주) >



< 사료피 생육 전경('25, 진주) >

□ 기대 효과

- (기술 보급) 사료피 신품종 안정 재배 및 저장·이용 기술의 조기 현장 보급
- (재배 확대) 전략작물직불 논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정책 지원